

Studio B



《제목을 못 정한 책》 펴낸 사운드 디자이너 김벌래 신나는 인생, 아름다운 소리를 발견하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신나는 김벌래입니다.”

부재중 자동응답 안내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녹음을 알리는 기계음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당황하고 있는 사이 수화기 넘어 기척이 들려온다.

국내 사운드 디자이너 1호 김벌래. 지난해 KBS 드라마 《눈의 여왕》에서 인기 배우 현빈을 지도하는 피쳐 교수로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진 그는 사실 2만여 편의 광고 음악을 담당한 사운드 전문가이자 40여 년 넘게 연극 연출·제작 해 온 연극인이기도 하다. 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교수를 역임 후 현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김벌래 씨는 60이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광고계에서는 아직 현역이다.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낸 그가 책을 냈다. 소리가 아닌 ‘글’로 자신의 소리 인생 40여 년을 정리해낸 책 제목은 《제목을 못 정한 책》. 예사롭지 않은 그의 면모가 드러난다.

“방송국 시절(동아방송)부터 ‘신나는 김벌래입니다’를 썼어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사무실로 전화오면 무조건 쓴거지. 내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재밌잖아요. 화딱지 나는 놈들도 전화 받고 ‘뭐가 신나’ 이래요.”(웃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상주로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전화가 오면 ‘신나는 김벌래’를 연발했다며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아무리 신나는 인생이어도 ‘삶’ 자체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없다. 하지만 그는 살아오면서 “신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인생을 신나고 멋지게 만들어 간 것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가 취했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 별명이 ‘김 웅’이예요. 폭탄이 떨어져도 느긋하다고. 원래부터 그랬던게 아니라 견디는 거죠. 어릴 적 펍박을 받고 자라서 웬만한 것은 우습지도 않아요. 참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이라고 부르니까 더 느긋해졌어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음향총괄 감독을 맡았을 때 40대 중반이었던 그는 5년을 잠실 주경기장 라커룸에서 기거했다.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학벌과 인맥의 장벽 뚫고 치열하게 소리를 만들어 얻은 명예로운 프로젝트였다. 성화 점화용 음악으로 다듬이 소리를 차용해 만든 음악이 일부 음악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이민’을 결심할 만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학벌 때문에 받은 차별이 심했죠. 너무 차별을 하니까 화는 나지만

참고 열심히 했어요. 내 식대로 일을 한거죠.”

그는 자신을 “괴물 15843호 신나는 김벌래”라고 부른다. 키 158cm, 몸무게 43kg.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신체 사이즈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김평호’라는 본명 대신 ‘벌래’라는 별명으로 스스로를 소개한다. 진짜 이름보다 더 알려진 ‘벌래’라는 예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극판을 누비던 그에게 연극인 이해랑 선생이 “조그만 녀석이 여기저기 안 보이는데 없이 벌레처럼 발발 거리고 돌아다닌다”면서 지어준 것이다. 예명 말고도 평석(平石)이라는 호가 또 있다. 이 역시 40년 쯤 전 수석 동호인 모임에서 돌을 주우러 강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평편한 돌을 깔고 앉은 것을 보고 ‘나도 저 돌처럼 평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단다.

이번 책은 그의 유쾌하고 즐거운 인생살이 중에서 ‘소리’에 대한 에피소드만을 모아 엮었다. 책에 담지 못한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 포니 자동차에 음원자료를 싣고 다녔던 시절 그는 다른 차들의 접근을 두려워했다. 자료들이 모두 레코드판이었기 때문에 혹여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날 일은 모두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아크릴판에 ‘운전미숙’을 써 넣고 뒷범퍼에 붙였다. 이를 본 방송인 송해 선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는 통에 유행이 되어 ‘초보운전’이라는 뜻말이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렸다. 덕분에 사고가 줄었던지 경찰청에서 공로패를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의 웃는 표정은 아이같다. 웃지 않는 얼굴이 오히려 주름이 많아 보인다. “가장 쉽게,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한국적으로! 그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소리 작업의 신조로 삼고 있는 그에게 정말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물었다.

“모든 소리를 좋아해요. 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에 쓸모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소음이 있어야 소리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거든요. 디지털로 만들지만 결국은 아날로그 즉 사람한테 들려주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가장 인간적인 소리가 잘 만드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쓸모없는 소리가 없듯이, 쓸모없는 실패도 없다고 말한다. 때로는 실패도 ‘신나게’ 했다니, 자칭 타칭 ‘괴물’로서의 면모는 바로 그만의 긍정 에너지 덕분이 아닐까 싶다. **한민**